

대행 스님

죽고 사는 걸 떠나야만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듯이 인간의 생명도 바로 한데 뭉쳤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생물이 생긴 것도 역시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생명체가 생기듯이, 우리 한 몸뚱이가 나오려면 양 부모의 뜻과 내 영혼의 뜻과 그 형체가 형성되면 작용해 줄 수 있는 그 업식, 그 의식들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자기가 지은 대로 다 합쳐서 이 세상에 형성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인간이 살 수도 없고 또 최고의 동물로서 활동도 못 할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 이 지수화풍이 바탕이 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떠나서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두뇌로 해서 연구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연구가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물질이 개발되고, 지금 현재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죠.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았더라면 뭐, 고체니 기체니 액체니 이러한 말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여 또 레이저 광선이 개발이 됐죠? 그 레이저 광선을 지금 얼마나 유리하게 세상이 다 쓰고 있습니까? 병원이라면 병원, 떠다니는 비행기 또는 하늘 꼭대기로 쏘는 거, 일거일동입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전화까지도. 그것뿐이 아니죠? 일체가 지금은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속에 병이 들어도 거기다 광선을 쬐야 하고, 또는 재는 거라든가, 쏘는 거라든가 아주 일품으로 쓰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는 거…,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죠. 레이저 광선은 어디나 쓰여지는 겁니다. 멀리도 갈 수 있고 가깝게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한번 그걸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올 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업식이라도 녹일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윤회성이나 또는 어떠한 거든지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이 모두를 녹일 수가 있는 공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내가 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만 명이다 하면 숫자를 놓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거든지 나투어서 응신이 돼서 내가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둘이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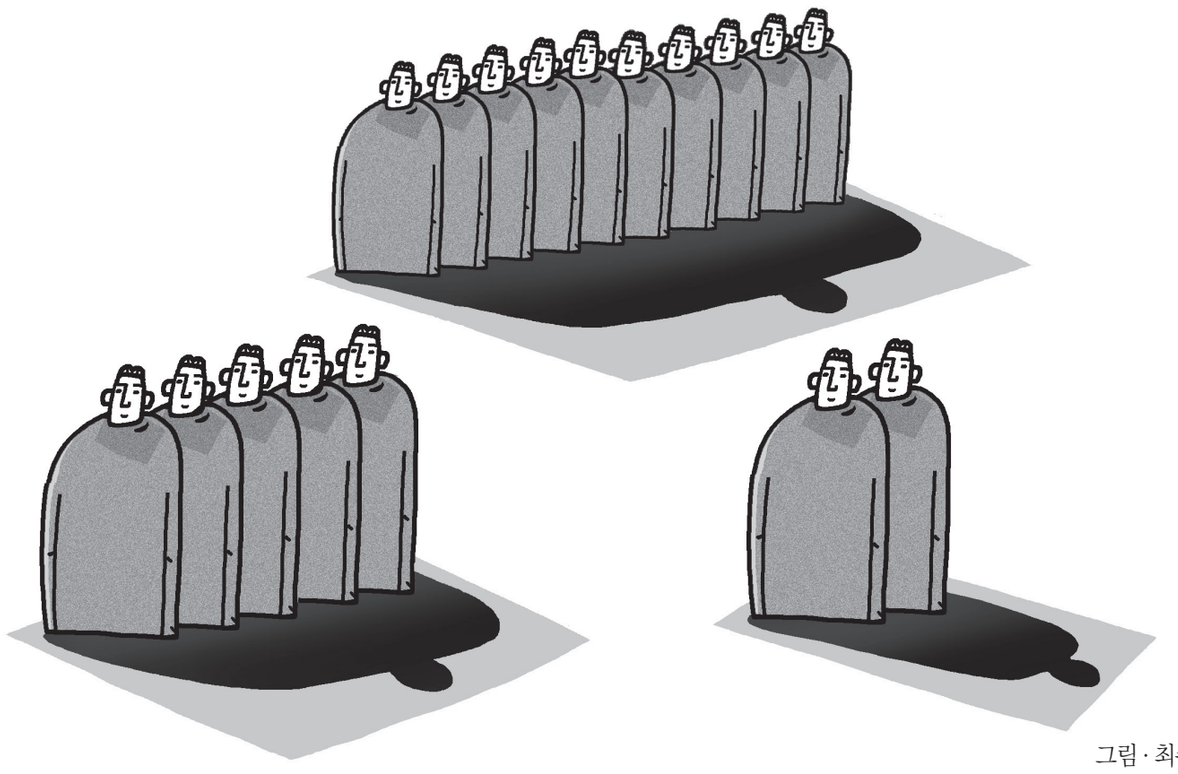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과거로 돌아갔다가 미래로 돌아갔다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도 있거니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찰나찰나에 지금 생활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업보 그 자체를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깝든지 멀든지 그걸 불문에 부치고 끌어다 보려면 끌어다 보고, 놓고 보려면 놓고 보고, 갖다 먹을 수 있으면 갖다 먹고,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고 맘대로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공부입니다. 날아가는 새나 비행기나 뭐가 다릅니까? 뭐든지, 로켓이 올라가는 것도 멈추게 하려면 멈추고 없애려면 없애고 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이건 엄청난 공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자유대권을 갖는데, 이 우주 천지의 모든 대권의 소유자인데….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도 근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요만큼 얘기를 하시고, 이만큼 가진 자에게는 이만큼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줘도 흘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로, 지식으로, 학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유마힐 거사가 같이 도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방편으로 보여 주신 거는 어느 누구도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동물로서 어떤 때 생각을 하면, 이 모두가 아픔을 껴안고 먹고 또는 먹히면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판국에서 하치않게 생각이 되면서도 그 생명의 존엄성은 엄연합니다. 이 인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인간까지 말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꼭 칼을 들어야만이 싸움이 아닙니다.

뼈저린 아픔을 견디면서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좁게만 보지 마시고 넓게 한번 펼쳐서 봐 보십시오, 어떠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육체적 장애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입니다. 정신장애자도 장애자인 것이고요.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살다가도 병신이 되고, 이것이 누가 뒤에서 쫓아오고 쫓는 게 아니라 쫓아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서 또 잡아먹히는 이러한 세상을 모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 사는 게 쓸데없이 생각이 되고요. 허! 기가 막혀서 하늘을 쳐다보고 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 내 몸, 내 가정만 생각하고 모든 걸 아주 좁게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더 막막하단 말입니다. 어떤 땐 기가 막혀서 그저 나갈이 바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먹히는 그런 항아리 속에서 쫓고 쫓기지는 않겠죠.

이 불교에서 불법이다, 불교다, 사찰에 가면은 그저 부처님 믿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당당하게 "너부터 알라." 그랬습니다. 네 몸뚱이가 내 몸뚱이하고 다른 게 있느냐.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른 게 있느냐. 생명도 다른 게 없고 마음도 다른 게 없고 몸도 다른 게 없다. 그러나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항상 말하지마는 기독교니 가톨릭교니 뭐, 알라신교니 원불교니 불교니, 이렇게 모두 방방곡곡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만히 보면 전부 기복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앞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하게 막아 놓고는 어쩌면 그렇게 상대로만 믿고 가요? 상대를 믿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세세생생을 두고 항상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종노릇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너는 땅을 짚고 일어나거라.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눈 뜬 장님이 되지 말고, 귀머거리가 되지 말아라. 이 우주 천하 모든 도리천은 너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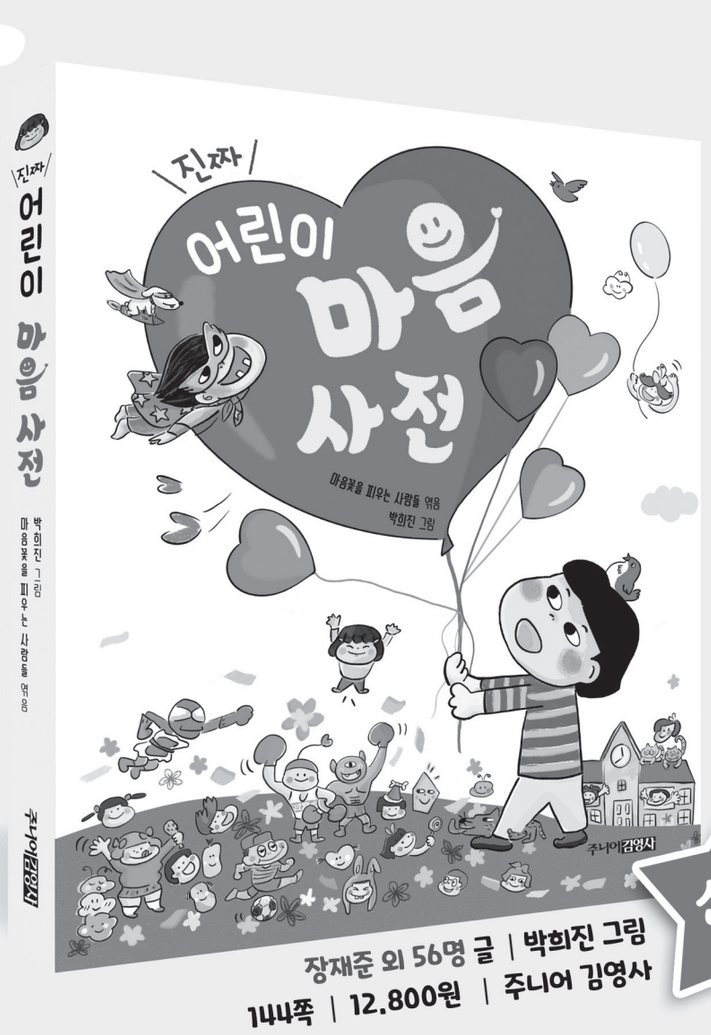
유마힐 거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님네들이 앉아서 좌선하고 있는 걸 보면 "좌선을 했다 일어나면 끊어지지 않느냐." 하고 충고도 했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또 "내 몸이 나으려면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느냐." 하기도 했고요. 그것을 얼른 생각해서 내 내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모두 바깥으로 그 말씀만 받아들여서, 이 바깥의 중생들을 다 거둬야 자기 몸이 낫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몸속의 중생들이, 그 생명의 의식들이 작용을 해서 그 모든 의식들이 병이 나아야 나도 낫는 거 아닙니까? 각자 여러분 말입니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몸속의 그 생명의 모습, 의식들이 바로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만들어 주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지구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노라고. 모든 오장육부의 생명들, 생명체는 우리 인간이 부산으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걸 알게 해 줘야죠. 내가 마음먹는 대로 같이 뭉쳐서 같이 한마음을 내서 들일 건 들이고 낼 건 내고 자유자재권을 형성시켜서 나가야 그것이 천백억화신으로 화(化)하죠. 나의 그 모든 수십억의 의식들은 바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바로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심력이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모르고 믿질 못해서 의식들은 의식들대로 놀고, 즉 말하자면 위 공장은 위 공장대로 따로 놀고, 장 공장은 장 공장대로 따로 놀고, 방광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콩팥 공장, 심장 공장 죄 따로 노는 겁니다. 죄 따로 노니까, 호랑이 없는 산에 여우가 선생이라고 그러죠. 내가 제일이라고 하거

☞ 22면으로 계속

월간 어린이잡지 「마음꽃」 인기코너
〈아무나 쓰는 이야기〉 모음집



우리가 잘 몰랐던
어린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볼까요?

장재준 외 56명 글 | 박희진 그림
144쪽 | 12,800원 | 주니어 김영사

신간!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빴다.
월요일에는 놀랴,
화요일에는 학교 숙제하랴,
수요일에는 책 읽으랴,
목요일에는 학원 가랴 ……,
금요일에도 또 학원 가랴 ……
초등학생은 바빠도 너무 바빠!
-본문 중에서

인터넷 판매중

전국 대형서점 및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에서 구매하세요.